

Z세대 태극전사들, 스타들 응원에 "성덕 됐어요"

탁구선수 신유빈, BTS 뷔 응원 캡처해 "손 떨린다" SNS에 댓글 안산·황선우·함은지 등도 마마무·ITZY·우주소녀 응원에 감격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Z세대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K팝 스타들로부터 직접 응원 메시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이들 젊은 태극 전사는 자신들이 속칭 '성공한 덕후' 또는 줄임말로 '성덕'이 됐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덕후'는 일본어 오타쿠를 우리말로 변용한 속어로 한 분야나 인물 등에 폭 빠진 사람을 지칭한다. 역대 여자 55kg급에서 7위에 오른 함은지(24·원주시청)는 지난 26일 경기 후 소셜미디어에 보이그룹 더보이즈 선우 캐릭터 인형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선우는 팬 플랫폼 유니버스를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 선수님께서 (팬이라는) 소식 들으셨다"며 "너무 고생하셨고 자랑스럽다.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화답했다. 함은지는 이 화면을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뒤 "손 떨리고 미친다"고 적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으로 알려진 탁구선수 신유빈(17·대한항공)은 뷔에게서 응원을 받았다.

뷔는 지난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신유빈이 과거 방송에서 "BTS 신곡을 들으면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가락을 지켜든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이를 본 신유빈은 언론 인터뷰에서 "위버스에 뭐가 올라왔길래 봤는데 바로 저였다"며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경기가 있어서 낮했다"고 말했다. 양궁 2관왕에 오르며 남자 양궁 김제덕과 함께 Z세대 대표주자로 떠오른 안산(20·광주여대)은 경기복에 걸그룹 마마무의 응원봉 배지를 달고 나올 만큼 열성 마마무 팬이다. 걸그룹 우주소녀의 팬이기도 한 안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멤버 은서가 "멋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안산은 "우정(팬덤 이름)인 제가 주연(은서 본명)님 댓글도 받다니, 이렇게 성덕이 될 수가 있을까요"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자유형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쓰며 결승에 진출한 수영선수 황선우(18·서울체고)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황선우, 예지(ITZY), 뷔(BTS), 신유빈.

가장 좋아하는 가수라고 밝힌 걸그룹 있지(ITZY) 예지의 응원을 받았다. 예지는 지난 27일 소셜미디어에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한 사진을 올린 뒤 "잠시 후 있을 결승 파이팅. 저도 응원할게요"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장흥 장환마을 컨설팅 교육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최근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에 참여한 장흥군 장환마을을 김명현 어촌계장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청소, 갈등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어촌특화역량강화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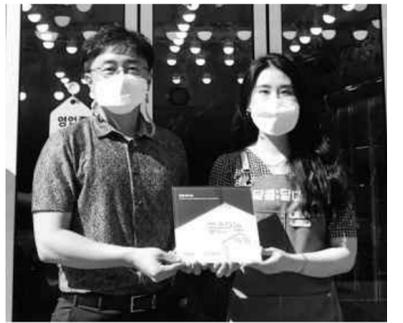
하나은행, 광주 지역아동센터 12곳에 '사랑의 PC' 전달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부행장 정민식·왼쪽 두번째)은 28일 광주 흥남니눔지역아동센터 등 광주 지역아동센터 12곳에 저소득층 청소년 비대면 교육을 위한 '사랑의 PC' 총 20대를 전달했다.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제공>

좋은이웃 캠페인 동참

목포 '달콤달다'



목포시 용해동 달콤달다(대표 박아영)가 최근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지부장 임광묵) '좋은이웃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국내 아동권리보호 사업을 후원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제공>

순천 정철어학원 오찬캠퍼스



순천 정철어학원 오찬캠퍼스(원장 강현정)가 최근 굿네이버스 전남지부(지부장 김수경) '좋은이웃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교육·보건·의료지원사업을 후원하기로 했다.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무료 영어 수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전남지부 제공>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올림픽 투데이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50 2020 도쿄올림픽 <양궁/배구/농구/유도/수영/골프>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여기는 도쿄 <골프/유도>		10 SBS 도쿄올림픽 <양궁/여자배구/유도/수영/골프>
10	00 2020 도쿄올림픽 <농구, 배드민턴, 탁구, 수영>	40 여기는 도쿄 <배구>		
11			55 MBC 뉴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30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탁구>			
1		00 여기는 도쿄 <양궁/유도>	05 2020 도쿄올림픽 슈퍼매치 <핸드볼/여자예선, 대한민국:일본/유도>	30 SBS 도쿄올림픽 <여자핸드볼/유도/골프>
2	00 2020 도쿄올림픽 <핸드볼, 탁구>			
3		00 KBS 뉴스타임 10 여기는 도쿄 <골프/양궁>		
4			30 2020 도쿄올림픽 슈퍼매치 <야구 대한민국:이스라엘/양궁/유도/수영>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2020 도쿄올림픽 <농구>	00 여기는 도쿄 <유도>		00 SBS 도쿄올림픽 <야구/양궁/유도/탁구>
6		30 여기는 도쿄 <야구>		
7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7 20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수영>			
8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5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	00 MBC 뉴스데스크 40 광주MBC 다큐플러스 핑크피쉬	00 SBS 8 뉴스 15 KBC 8 뉴스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
11	10 2020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	30 대화의 희열 3	4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2			10 굿나잇 도쿄	00 도쿄 투나잇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미스터리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로이와 함께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EBS 부모	19:05 포텐톡
07:15 티시테시	13:00 일당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명의	19:5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안전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땀방울 유치원	15:15 클래스 e	<남미, 취향 저격 가이드북 -아마존에 스며들다, 불리비아>
08:30 우당탕탕 우하얀전단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8:45 한글용사 아이야	15:50 가만히 10분 명TV	<루인 여름을 살기로 했다 4부 산길 따라 물길 따라>
09:00 시공	16:00 페파 피구	21:50 파란만장
09:15 봉우야 말해줘2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22:45 다시 인생, 죽기 전에 꼭 한번
09:30 우당탕탕 아이큐	16:30 땀방울 유치원(재)	23:35 클래스 e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9일(음 6월 20일 戊寅)

<p>36년생 주중에 따라서 선수를 따져야만 하느니라. 48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60년생 원리를 파악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72년생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84년생 제대로 호평 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96년생 실익은 있으나 기대해 왔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행운의 숫자 : 31, 58</p>	<p>42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간단히 끝나겠다. 54년생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66년생 현실적이고 실리적으로 처리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말썽을 피운다. 78년생 점차 확대 되어가는 길목으로 향한다. 90년생 위험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다. 02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용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6, 62</p>
<p>37년생 분명히 장교한 후에 결정할 일이다. 49년생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니 부지런히 활동하라. 61년생 약재가 여러 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73년생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리라. 85년생 지금은 달갑지 않을 지라도 수용하는 것이 백 번 낫다. 97년생 흥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할 소지가 많으니 낙심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2, 60</p>	<p>43년생 실제적인 관계여야만 의미가 있다. 55년생 식사함에 파묻혀서는 아무것도 이를 수 없느니라. 67년생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79년생 분디의 상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노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91년생 형편이 점점 향상될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리자. 03년생 현타에서 벗어나고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0, 77</p>
<p>38년생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주된 것의 손실이 있을 수다. 50년생 뜻을 확실히 펼쳐도 좋을 때가 되었다. 62년생 재물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다. 74년생 다양성의 상 황 하에서 활로가 보인다. 86년생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발언하지 않는 것이 옳다. 98년생 지켜보고 있으면 반드시 걸음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니라. 행운의 숫자 : 09, 99</p>	<p>32년생 상대를 존중해 준다면 무궁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44년생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이 안전하다. 56년생 정오의 실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68년생 안목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80년생 조절을 잘 해야 무리함이 없을 것이다. 92년생 급작스런 변화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3, 56</p>
<p>39년생 대처해 나간다면 늦게나마 가닥을 잡으리라. 51년생 손에 찾아오더라도 불굴의 끈기가 필요하다. 63년생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75년생 지금 열심히 하더라도 헛수고를 하는 셈이다. 87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99년생 평소 애써왔던 것이 힘이 된다. 행운의 숫자 : 15, 64</p>	<p>33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를 뒤로하고 생산적인 판국으로 접어들겠다. 45년생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이다. 57년생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69년생 절망 활용하면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니라. 81년생 전해들은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음을 알아. 93년생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21, 78</p>
<p>40년생 방심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52년생 순풍에 돛을 단다. 64년생 공리를 잘 하여서 대처하지 않으면 반드시 붕괴하게 되어 있다. 76년생 임의적인 예단은 소모적일 뿐이다. 88년생 이미 따 놓은 당상이니 하등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00년생 계획대로 추진 될 것이니 최선을 다하면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8, 50</p>	<p>34년생 예감을 무시하다가가는 큰코다칩다. 46년생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58년생 원칙적인 적용보다 합리적인 융통성이 더 필요한 때이다. 70년생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82년생 보고도 못 본체하고 들어도 못 듣는 체 해야 한다. 94년생 희망 사항에 부합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3, 61</p>
<p>41년생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53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생 변화를 갖는다면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니 어지간하면 유지하라. 77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89년생 내면적 실정에 충실함이 이익이다. 01년생 한껏 멋 내고서 달밤에 홀로 걷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14, 71</p>	<p>35년생 현실적으로 실현 될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47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59년생 환심을 사기 위한 제스처에 미혹되면 곤란하다. 71년생 나서지 말고 잠자코 보고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3년생 연결 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95년생 기본 행태는 그대로 유지하자. 행운의 숫자 : 19, 74</p>